

포커스 대구 남산동 신풍종합인쇄소 박승현 사장

활자 매력에 35년 외길

요

즈음 국악계에서는 잊혀져 가는 우리의 소리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우리의 소리를 보존하기 위해 올 연말에는 충북 진천에 '종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인쇄인들은 우리의 전통 '소리'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개발한 인쇄종주국이지만 전통의 인쇄 소리인 활자인쇄 소리는 이제 듣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쇄공장 어디를 가보더라도 서양의 인쇄기기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활판인쇄가 우리 선조들이 고안해 낸 금속활자를 기계적으로 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인쇄인들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정겨운 소리일 수 밖에 없다.

고객이 원하면 활판인쇄 계속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진입로에 위치한 신풍종합인쇄소(대표 박승현)는 잊혀져 가는 우리의 소리인 활판인쇄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활판인쇄사다.

신풍종합인쇄소는 16년 전인 1987년 5월 지금의 자리에 8절 활판인쇄기를 비롯해 명함기, 재단기를 들여놓고 활판인쇄를 시작했다. 그 후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절반이었던 회사규모를 배로 키우고 활판인쇄기 2대와 수동 금박기 등을 더 들여놓으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1997년 IMF 체제 하에 들고나서부터 활판인쇄 수요가 줄면서 신풍인쇄소도 활판인쇄기 1대를 처분하고 넘버링기와 소형 단색기를 들여놓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부인과 박승현 사장 두 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활판인쇄소하면 신풍을 얘기할 정도로 명성을 날렸던 곳이다.

신풍인쇄소는 그동안 신풍을 찾아 준 것에 대한 보답과 활판인쇄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신풍인쇄소의 활판인쇄는 '현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판이란 활자를 문선해서 바로 판을 만들어 직접 인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연판이나 동판을 만들어 인쇄하는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나며, 활자가 다양하지 않고 큰 글자가 적기 때문에 주로 서류양식,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에 많이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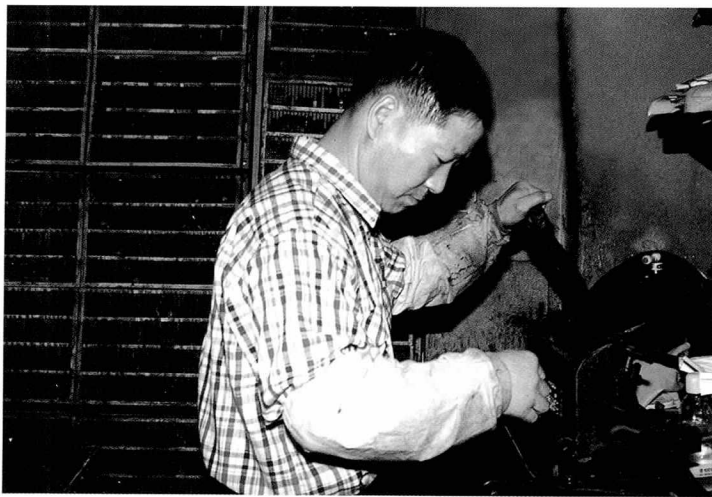
신풍인쇄소에서는 주로 공문이나 서류양식, 영수증, 화물운송장, 거래명세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동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족보 수정 작업, 절취선·접지선 등을 넣는 일을 하고 있다.

다양한 활판시설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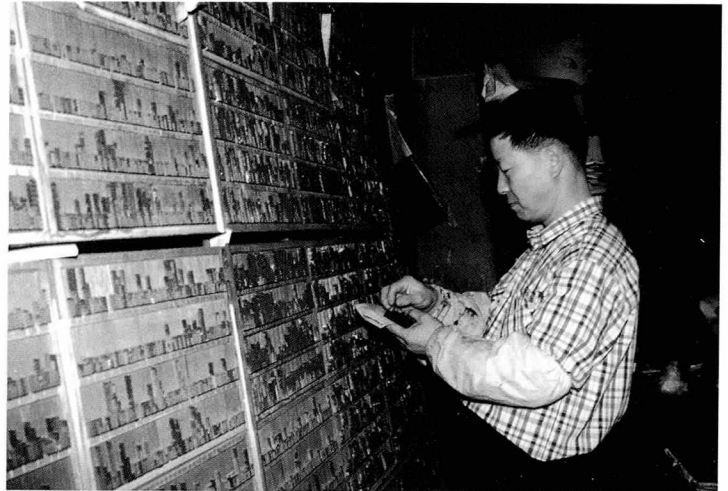
신풍종합인쇄소에서 눈 여겨 볼만한 것 중의 하나가 명함기이다. 이것은 어디에 가더라도 보기 힘든 수동 명함기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듯하다. 제작사는 알 수 없지만 신풍인쇄소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풍인쇄소를 대표하는 활판인쇄기 2대.

전에는 3대였으나 지금은 8절과 4절 각각 1대씩 남아 있는



- | | | |
|---|---|---------------------|
| 1 | 2 | 1. 문선된 활자를 조판하고 있다. |
| | | 2. 부인과 함께 |
| | 3 | 3. 필요한 활자를 문선하고 있다. |



데 이 활판인쇄기들은 대구중공업(주)에서 만든 국산제품이다. 국내에서 어떤 형식으로도 인쇄기를 제작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속활자와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평인쇄소는 자랑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밖에도 골동품처럼 보이는 수동 금박기와 재단기, 그리고 신평인쇄소의 역사를 말해주는 활자와 조판도구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들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활자는 현재도 80 세트가 넘게 갖추어져 있으며, 조판도구들도 계속 쓰이고 있어 낡은 작업대와 잘 어우러진 인쇄역사박물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진정한인쇄인 박승현 사장

전국적으로 활판인쇄소가 사라지고 있는데 신평종합인쇄소는 아직도 활판인쇄를 고집하고 있다. IMF를 맞아 어려워진 세태를 반영하듯이 급격한 인쇄물의 저하는 활판인쇄업계에 아예 설자리조차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활판을 없애고 오프셋인쇄로 전환하거나 아예 인쇄업을 접은 인쇄인들도 많지만, 신평종합인쇄소의 박승현 사장은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활판인쇄를 고집하고 있다.

“35년 간 활판인쇄만 해서 다른 것은 할 줄 모른다”

왜 활판인쇄만 고집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지만, 여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활판인쇄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박승현 사장은 중학교에 다닐 당시 활판인쇄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매력을 느끼게 돼 문선, 조판, 인쇄 등 활판인쇄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특히 문선하는 일은 한글은 물론이거니와 한자를 잘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한문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서류양식들이 대부분 한자여서 한자를 모르면 문선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피나는 노력 끝에 지난 1987년 직접 인쇄소를 운영하게 된 박 사장은 그 노력의 대가로 사세를 확장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되었다.

“지금은 일이 그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활판인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동으로는 못하는 일들도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돈 벌어서 자식들 다 키웠으니 그것으로도 만족한다”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 당시 도와주신 분들과 지금도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 계속 활판인쇄를 고집하는 박 사장은 본의 아니게 넘버링기와 단색기를 들여놓았다고 한다. 그것은 박 사장 부인이 활판인쇄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박 사장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들여놓은 것이다. 이것도 활판인쇄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래 간직해야 될 문서는 활판인쇄가 제격인데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활판인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 고객 한 분이라도 찾아 준다면 계속 활판인쇄를 고집할 것이다”

잊혀져 가는 우리의 소리를 고집스럽게 부여잡고 있는 박승현 사장은 화려했던 옛날을 추억하면서 정겨운 기계소리를 보존하는 인쇄인 중의 인쇄인이다.

(윤재호 부장)